



### 광주환경공단 '빛물받이 맵핑·기부 캠페인'

광주환경공단은 KT전남·전북광역본부, 광주시지원봉사센터, 광주관광공사, 서구시설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한 ESG 캠페인 '겉GO! 막GO! 광주를 지키G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도심 침수 예방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형 ESG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기간 동안 △빛물받이 맵핑 △걸음 기부 △차수막 기부 등 세 가지 활동이 병행 추진됐다.

총 79개 크루, 398명의 시민과 참여기관 임직원이 함께해 총 9541만 보의 걸음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350만원의 차수막 기부금을 마련했다.

또한 광주 시내 323개소의 빛물받이를 맵핑하고, 약 650개의 차수막을 기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정상이 기자**



### 호남대, 빛고을 직업계고 '일본요리 실습'

호남대학교 외식조리베이커리학과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지역 직업계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본 요리의 이해 1, 2' 실습 프로그램을 현명관 조리실습실(5607-1호)에서 운영했다.(사진)

호남대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일본 조리 역량을 향상시키고, 실무 중심의 조리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8일에는 송의과학기술고 '내빵내빵' 팀 3명과 광주전자공업고 'ACT&ECT' 팀 4명 등 총 7명, 9일에는 동일미래과학고 '진로맵' 팀 17명과 광주전자공업고 2명 등 총 19명의 학생이 각각 참가했다. 실습은 △연어 납반찌개 튀기기 및 초절임(초회요리) △새우 및 채소 튀김(튀김요리) △초밥 재료 손질 및 초밥 짓기(초밥요리) △면 삶기와 담기, 부재료 손질(면요리) 등 다양한 일본 전통 조리법에 대한 시연과 실습으로 구성됐다. **노병하 기자**



### 전남교육청, 영어수업에 에듀테크 날개 단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영어수업에 인공지능 기반 에듀테크를 접목한 실습형 연수를 통해 영어교육전담인력의 수업 역량 강화에 나섰다.(사진)

9일 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4일 여수정보과학고 빅데이터분석실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내국인강사를 대상으로 에듀테크 실습 중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워드월(Wordwall), 니어팟(Nearpod), 캔바(Canvas), 패들렛(Padlet) 등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수업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맞춤형 영어 수업 기획을 실습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원 강사들이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노하우를 공유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참가자들은 "교실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활용법을 익힐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병하 기자**



### 광주여대, 지역 고교 찾아가는 입시 상담

광주여자대학교 입학팀이 2026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입시 박람회'를 광주·전남·전북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다.(사진)

이번 박람회는 지난달 5일 전라남도 보성 예당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총 30개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 중이다.

'대학과 함께하는 학생 맞춤형 진로 계획'을 주제로, 참가 학생들에게 광주여대의 다양한 학과 전공을 체험하고,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람회에서는 광주여대의 학과 경쟁력, 유연한 교육과정, 디그리 제도, 장학혜택, 동아리 활동, 최신기숙사 시설 등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특히 전년도 수시모집 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한 1:1 맞춤형 입시 상담이 진행돼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노병하 기자**



### 동신대 응급구조과, 반려동물 심폐소생 교육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동신대학교 응급구조학과가 최근 나주소방서와 함께 '반려동물 안전교육'을 주제로 학습나눔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인기를 끌었다.(사진)

9일 동신대에 따르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추진된 이번 프로그램에서 응급구조학과 봉사동아리 '응급슬쩍' 학생들은 한전에너지공과대학, 농식품기술평가원, 빛나라어린이집, 전남경찰청 기동대 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응급 상황 대처법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반려동물 기초 안전 지식 등 실제 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동신대 김세훈 응급구조학과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공 분야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 북부경찰-북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약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8일 광주북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비행 및 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 밖에서 재도약하는 청소년의 회복 지원 연계 활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전담경찰관 핫라인 구축 △법 체험 및 경찰 직업 체험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재원 북부경찰 여성청소년과장은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양 기관이 협업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 광주세계장애인양궁대회 조직위-상이군경회 업무협약

#### 장애인양궁대회에 특장차량 지원 선수단 편의·이동 안전 도모

2025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시지부와 지난 8일 광주광역시청 접견실에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협약은 9월2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인 선수단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이날 협약에 따라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상이군경회가 보유한 휠체어 리프트 특장차량과 전문 운전인력을 대회 운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선수단 입출국과 경기장 이동에 총 26대의 차량을 투입할 계획

이며, 이 중 7대는 상이군경회가 지원한다. 특히 경기 당일에는 하루 16대의 차량이 장애인 선수단의 경기장 이동을 전담하게 된다.

강기정 조직위원장(광주시장)은 "특장차량 지원은 장애인 선수단에겐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이동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손잡고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대회는 세계 양궁 3대 이벤트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비장애인대회와 동시에 열린다. 지금까지는 이탈리아 토리노, 네덜란드 스토크토벤호스에서만 동시에 개최된 바 있다.

이번 대회는 리커브, 컴파운드, 중증장애, 시각장애 등 총 17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7일 기준 40개국 417명의 선수가 참가 등록을 마쳤다. **최동환 기자**



### 신한라이프, 광주시에 아동급식비 5000만원 전달

#### 지역아동센터 50곳 1200여명 여름방학기간 건강한 급식 제공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신한라이프,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신한라이프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비 후원금 5000만원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 김민지 신한라이프 상무, 김영기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전달받은 후원금으로 지역아동센터 50개소 아동 1200여명에게 여름방학(21일-8월16일) 동안 건강하고 영양이 있는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센터는 광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총 296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 등 우선돌봄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 건전한 놀이·오락 활동, 보호자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복지시설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여러 지자체와 함께 돌봄, 금융교육, 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김민지 신한라이프 상무는 "지역아동센터 후원은 방학동안 부모들이 가장 고민하는 아이들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됐다"며 "특히 신한라이프 본사와 광주에 근무하는 FC(보험설계사)가 동참해 추진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후원해 준 신한라이프와 광주사회복지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광주시는 2019년 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2025년 상위인증 획득한 만큼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